

칼럼

김수중 뉴스1 코olumn



현대차 위기, 노동자의 위기

나라 안을 보나 전 세계를 놓고 보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가 변화의 격랑 속으로 휩쓸려 가는 것을 느낀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현대자동차 노사 외부자문위원회가 내린 진단, 즉 "향후 최소 20%에서 최대 40%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은 의미심장하다.

이렇게 인력을 감축해야 한다는 진단을 내린 외부자문위원회는 현대자동차 노사 합의로 만들

어진 일종의 테스크포스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객관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4차산업혁명에 정통한 외부 전문가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월부터 활동에 들어간 외부자문위원회는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고용영향을 연구·분석하고 고용 문제 예방 대책을 모색해서 진단서를 마련했고, 지난 4일 고용안정 위원회에서 이것을 공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자문위원회는 인력감축의 불가피성을 전동화(Electrification), 공유경제(Sharing), 새로운 이동수단(Mobility)에 그 원인을 두고 있다.

상당히 전문적인 용어라서 어려운데, 좀 쉽게 설명하자면 전기차 및 수소차의 본격 등장과 공장자동화의 확산이 노동력의

감축과 재배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미 세계 자동차산업은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길로 접어들었다. 그 길은 전기차다.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인 폭스바겐이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을 선언하고 2020년부터 전기차 생산체제로 급속히 회전한다.

전기차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에 반가운 존재가 아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생뚱처럼 여겼던 엔진과 변속기가 필요하지 않다.

전기차는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에 반가운 존재가 아니다. 자동차 회사들이 생뚱처럼 여겼던 엔진과 변속기가 필요하지 않다. 자동차를 조립하는 데 들어가는 부품 수가 3만개에서 약 2만개로 30% 이상 줄어든다.

업체에도 그대로 전달된다. 설상가상으로 자동차 조립 공정도 스마트팩토리 기술, 즉 자동화가 확산되면서 노동자가 설 땅은 더 좁아진다.

현대자동차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이중전략으로 자동차산업 패러다임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사실 수소차도 기본 원리는 전기차와 비슷해서 부품이 전기차보다 약간 더 들어갈 뿐이라고 한다.

최근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을 역임한 오명 박사를 사적인 모임에서 만났던 기억이 떠오른다. 그는 엔진과 트랜스미션이 필요 없는 전기자동차를 얘기하면서 "내연기관 시대처럼 거대 자동차 조립회사가 꼭 필요할까요? 부품을 구입해서 맞춤형 자동차를 너도나도 생산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고 논평했다.

오명 박사는 정부 각료를 지낸 사람 중에서도 특이한 경력의 소유자다. 육사졸업 후 서울대에서 전자공학을 공부하고 뉴욕주립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전두환 정부 때 체신부 차관으로 발탁되어 한국 전화시스템을 전전자교환방식으로 개혁한 사람이다.

社說

전좌석 안전띠 착용 필수다

지난해 9월부터 차량 전 좌석에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 됐지만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석 미착용 적발은 지난해에 3만2897건이 적발됐고,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도 1344건이 적발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의원이 받은 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운전석 안전띠 미착용 적발건수는 지난해 전국서 40만 2608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광주는 5641건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2만7256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뒷좌석이나 앞자리 조수석 등 동승자가 안전띠를 미착용해 적발된 경우도 지난해 광주가 454건, 전남 890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일반도로에서의 앞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88.1%에 달했다.

전띠 착용률은 32.6%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와 전남지역에서는 아직까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띠 미착용은 광주 40.91%, 북구 36.36%, 서구 33.33%, 광주 동구 6.67%, 남구 5.56%로 나타났다.

전남은 목포 0%, 완도 7.69%, 광양·나주 33.33%, 진도 50%, 영광 66.67%, 여수 75%, 장흥 95.83%, 강진·고흥·영암·함평·해남·화순 100%로 확인됐다.

반면 곡성·구례·담양·무안·보성·순천·신안·장성은 관련 내용이 기재되지 않았다.

관계당국은 교통안전 선진국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90% 이상으로 해외 모범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안전띠 착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안전띠를 생명띠라 부르기도 한다. 그만큼 사고 발생시 우리의 생명과도 직결된다 하겠다. 승차하면 무조건 안전띠 매는 것을 생활화해야 한다. 그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기 때문이다.

생활정보전화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응급질병상담 1399
▲미아·가출인 신고 182
▲여성 긴급전화 1366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기상예보 131
▲법률구조상담 132
▲인명 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광주 남성의전화 673-9001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수도고장신고 121
▲전기고장신고 123
▲가스사고신고 383-0019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팩스 (062) 222-5547
대표이사·회장·발행인 김평호
편집인·편집국장 강서원
본사: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취재본부: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즐거운 가을축제, 안전사고 예방으로부터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금년 들어 전국에서 치러지는 축제는 모두 884건으로, 이중 10월 축제만 연중 최고인 220개(25%)에 참여 인원 10만 명 이상 축제가 90개, 100만 명 이상인 축제도 12개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축제는 많은 사람이 모이는 혼잡한 장소로, 사소한 부주의가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사고에 주의해야한다. 또한,

먹거리 축제의 경우 가스버너 등 화기사용이 많기 때문에 특히 화재 등에 주의해야 한다.

역대 축제사고사례로는, 지난 2014년 10월, 경기도 성남시의 야외공연장 환풍구 덮개 붕괴로 27(사망16, 부상1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2015년 9월에도 강원도 물레길 페스티벌에서 자전거사고로 1명이 사망했다.

올 해들어 화순군에서는 5개의

축제(철쭉제, 동구리호수공원 봄축제, 운주문화축제, 고인돌문화축제, 적벽문화축제)가 개최되어 모두 사고 없이 마쳤고, 앞으로도 25일부터 17일간 진행되는 국화축제가 남아있다.

가을축제를 안전하고 즐겁게 즐기 위해서는 다음의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

첫째, 축제에 참여할 때는 차례 지키기, 안내요원 지시에 따르기 등 기본질서에 충실 한다.

둘째, 공연관람 시 시야확보를 위해 안전 구조물 등 높은 곳에

올라서거나 안전구역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

셋째, 야간축제 시 폭죽 등의 위험물 휴대를 금하고 천막고정 끈 등이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넷째, 조리장소 등, 불을 사용하는 곳에서는 위급상황에 대비해 소화기를 비치하고 인근에 가연성 물질이 없는지 확인한다.

다섯째, 위급상황 발생 즉시 119에 신고하고,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행동한다.

임영진 / 화순능주119안전센터 소방위

문화융성
국인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